

데뷔 20년 차 아역? 아니!! 주연으로 우뚝 선 김유정

배우 김유정 하면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? 맞아, 아역 스타야. 김유정은 네 살 때 데뷔해서 어릴 때부터 연기를 했어. 그래서 김유정이 아직도 어린 줄 아는 사람도 있다지. 어느새 훌쩍 자라 영화·드라마를 섭렵하고 내년엔 연극까지 출연하는 등 수많은 작품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유정을 들여다보자.

글 남지은(한겨레 문화부 기자) 사진 KBS-넷플릭스-어썸이엔티



☆ 과자 CF로 '아역 스타'

김유정은 네 살 때 과자 광고 모델로 데뷔했어. 엄마가 김유정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는데, 그걸 보고 광고 회사에서 연락이 왔대. 연기는 이듬해인 2004년에 시작했어. 영화 <DMZ, 비무장지대>로 데뷔했지. 드라마는 <빙점>에서 단역을 맡은 게 처음이야. 여섯 살 때인 2005년에는 영화 <친절한 금자씨>에서 백 선생(최민식)한테 납치당한 아이 중 한 명인 '재경'으로 출연해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였어.

김유정은 주로 드라마 주인공의 아역을 맡았어. <바람의 화원>에서는 문근영의 아역을, <일지매> <동이>에서는 한효주의 아역을, <로드 넘버 원>에서는 김하늘의 아역을 맡아 그들의 어린 시절을 연기했지. 누구의

딸이기도 했어. 드라마 <앵그리맘>에서는 김희선의 딸 역할이었지. 아역으로 두각을 나타내던 김유정은 열한 살에 드라마 <구미호: 여우누이뎐>의 '최연소 구미호'로 발탁되는 등 실력을 인정받았어. 이후 영화 <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>에서 누구의 어린 시절이 아닌 독립적인 역할을 맡으면서 존재감을 갖기 시작했단다.

김유정을 아역 스타로 만들어 준 작품은 2012년 드라마 <해를 품은 달>이야. 여주인공 한가인의 어린 시절을 연기했지. 이 작품에서는 김유정을 비롯해 김소현·여진구 등 아역 배우들이 성인 못지않게 큰 사랑을 받았어. 김유정은 김수현의 아역 여진구와 멜로를 선보이며 안타까운 감정을 주고받는 등 다양한 감정 연기를 훌륭하게 소화해 화제를 모았단다.



★ 성인 연기자로 자리매김

<해를 품은 달> 이후 김유정은 웹 드라마 초창기 시절에 주인공도 맡고, 음악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등 요즘 아이돌들의 교과서 같은 성장기를 썼어. 그러다 2016년 김유정의 대표작인 드라마 <구르미 그린 달빛>에 출연했어. 김유정은 여자 주인공으로 나와 남자 주인공 박보검과 함께 큰 인기를 얻었지.

이 드라마를 통해 아역 배우라는 이미지를 말끔히 지웠어. 당시 김유정은 실제로 열여덟 살이었는데 귀엽고 때론 우아한 캐릭터를 잘 소화하면서 김유정이라는 배우 자체를 잘 보여 줬지. 이 작품으로 김유정은 ‘KBS 연기대상’ 여자 우수상, 베스트 커플상 등 상도 많이 받았단다. 이후로 김유정은 더는 ‘아역’이 아니었어. 어엿한 성인 연기자로 자리매김했지. 진짜 성인이 된 뒤 김유정이 처음 출연한 작품은 2018년 드라마 <일단 뜨겁게 청소하라!!>야.

★ 연기만 보고 달린 데뷔 20년 차

김유정은 초등학교 때 전학을 많이 다녔어. 어릴 때부터 연기를 하느라 학교생활은 제대로 못했지. 그런 점이 매우 아쉽다고 해. 하지만 김유정은 어렸을 때부터 꿈이 확고했고 곁을 지켜 준 친구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고 믿어. 김유정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배우 외에는 다른 꿈을 꾼 본 적이 없어. 문득 ‘배우를 안 했으면 뭘 하고 있을까?’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다른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대. 또 김유정은 우정에서 많은 힘을 얻는다고 해. 김유정은 “일하면서 힘들 때 친구들에게서 많은 위로를 받는다. 친구들과의 관계가 큰 영향을 준다.”라고 말했어.

김유정은 자라면서 그때그때 맞는 작품을 찾고, 캐릭터를 경험하는 등 연기에 몰두하면서 잘 성장해 왔어. 김유정은 “연기는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 주는 발판”이라고 했어.

★ <셰익스피어 인 러브>로 새로운 도전

새로운 것에 도전하길 좋아하는 김유정은 내년에 처음으로 연극에 출연해. 바로 <셰익스피어 인 러브>라는 작품이야. 1998년 개봉한 동명의 영화가 원작이지. <로미오와 줄리엣>이 대문호의 젊은 시절 사랑에 의해 탄생됐다는 상상에서 출발해, 1593년 영국 런던의 축망받는 신인 작가인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남장을 하고 연극 오디션을 보러 온 귀족의 딸 비올라를 사랑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야. 드라마와 영화에서 다양한 연기를 선보였던 김유정이 연극 무대에서는 어떤 모습일지 기대돼.

김유정은 “잘 컸다.”라는 말을 듣는 걸 좋아한대. 그래서 가끔 엄마나 지인들한테 연락해서 “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?”라고 물어본다고 해. ‘잘 컸다’라는 말을 들으려고 더 열심히 하는 건지도 몰라. 우리 친구들도 가끔 “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?”라고 엄마한테 물어봐. 그 전에 ‘잘하고 있다’ 혹은 ‘잘 컸다’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겠지? **엔**



👤 프로필

이름 김유정

생년월일 1999년 9월 22일

데뷔 2003년 CF ‘크라운제과-크라운산도’

소속사 어썸이엔티

수상

- 2020 SBS 연기대상 우수상(판타지/로맨스 부문)
- 2017 제53회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여자 인기상

